

배포 일시	2022. 7. 12.(화)		
담당 부서	종합교통정책관실 버스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경헌 (044-201-3823)
		담당자	사무관 한수증 (044-201-3826)
		담당자	주무관 임태호 (044-201-3830)
보도일시	2022년 7월 13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 13.(수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활성화 위해 민·관·학 한자리에 - 13일 모빌리티·운수업·학계, 정부·지자체 정책토론회 -

-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, 이용자 중심의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민·관·학이 한 자리에 모여 새로운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.
 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7월 13일 택시·버스업계, 모빌리티 기업, 학계 등 민간전문가,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`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활성화 정책토론회`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- 사전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활성화를 주제로 한 명지대학교 박호철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스튜디오G(과천시)의 `과천콜버스` 운영 사례 등 우수사례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자유 토론으로 이뤄질 예정이다.
 - 현재 수요응답형 교통개선 방안을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박호철 교수는 다양하고 개별화된 수요 등 미래 교통 여건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 등을 발표하면서,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.
 - 스튜디오G(플랫폼사업자)는 과천여객(시내버스사업자)과 공동으로 시범 운영(`22.4.7.~6.30.)한 `과천콜버스` 사업 개요 및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및 업계 간 상생 협력모델 도출 등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.

- 전문가 발제 및 지자체 사례 발표에 이어, 버스·택시업계, 모빌리티 업계, 한국교통연구원, 건설기술연구원 등 참석자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자유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“새 정부 국정과제로 국민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”면서,
 - “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, 원하는 방법으로, 원하는 곳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” 고 밝혔다.

<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사례 >

